

나주시, 수백억 수익 창출 '식품 재활용 산업' 선점 나선다

산업화 방안 토론회 개최...농산물·식품가공 부산물 활용 '푸드 테크' 식품산단에 연구지원센터 건립...자원조사·유용성분 연구 등 진행

나주시가 연간 버려지는 2500t의 농산물을 새로 활용하자는 '식품 재활용(푸드 업사이클링) 산업' 선점에 나선다.

나주시는 18일 오전 시청사 이화실에서 '탄소중립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조 발제에 나선 전준호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교수 박사의 '나주시 탄소중립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화 발전방안' 자료에 따르면 나주에서 폐기되는 농산물은 연간 2500t으로, 폐기 비용은 10억원에 달한다.

전남지역의 폐기 비용은 100억원이 넘는다. 연간 전남지역 가공식품 부산물 양은 약 20만t이다. 나주에서는 한 해 1만t의 가공식품 부산물이 나온다. 이들 부산물을 가공했을 때 나주 10억원, 전남 2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식품 기술) 산업

육성정책'에 맞춰 나주시는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푸드 업사이클링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해왔다.

나주시는 푸드테크 10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농산물·식품가공 부산물을 활용해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는 탄소중립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나주시 식품산업단지(동수동)에 '푸드 업사이클링 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자원조사와 유용성분 연구를 하게 된다.

나주시는 해당 산업의 입지적인 장점과 소재 개발, 제품 시험, 시제품 생산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나주 식품산업단지 인근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동신대 한의학과 등이 있다. 전남대 식

품학과, 전남도식품산업연구원 등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여건이 좋은 것도 장점이다.

나주에는 식품가공업소 166곳이 운영되고 있다. 마른 김 1차 생산업체가 많은 해남에 이어 나주 식품가공업소는 전남지역(1642곳)의 10.1% 비중을 차지하며 두 번째로 많았다.

나주 식품가공업소는 농산물 가공업소 44.6%(74곳), 축산물 22.3%(37곳), 수산물 12.7%(21곳), 도정업·사료제조 20.5%(34곳) 등으로 나뉘었다.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화 지원센터를 세웠을 때 기대되는 생산 유효효과는 331억원, 부가가치 유효효과는 123억원이다. 건설 86명, 기계·장치 64명 등 150명의 일자리도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전준호 박사의 발표 뒤에는 이상현 전남대 원예생명과학과 교수, 김영민·조정용 전남대 식품공학과 교수, 박소준 나주시의원(경제산업위원장), 양은주 식품산업연구원 연구개발팀장이 토론을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식품산업 원료를 재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탄소중립을 통한 온실



윤병태 나주시장이 18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나주시 탄소중립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화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농산물·식품가공 부산물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가스 감소로 기후 환경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등 자원순환 사회에 있어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며 "푸드 업사이클링 분야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하고 농가, 시민들의 이해 폭이 넓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주택 신축 '귀촌 1번지'로

도시민 인구 유입 정주 기반 조성 리모델링 지원사업 120건 접수 10개 읍·면 550세대 주택단지 조성

강진군이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신규마을 조성과 더불어 민선8기 신강진시대의 핵심 목표인 강진 인구 5만명 달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군에 임대하면 5년 임대시 5000만원, 7년 임대시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에서 직접 리모델링하고 전입 예정인 관외거주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전입하면 공사비의 50%, 최대 3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또 매매 의사가 있는 빈집을 군에서 매입해 철거 후 모듈러 주택을 신축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은 120건에 달하며 리모델링 주택 입주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입주 문의는 하루 평균 5-6건으로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김모씨는 강진에서 살아보기 푸소 한달 체험 후 강진군으로 귀농해서 두름을 키우고 싶다고 하며 리모델링 빈집 입주에 대해 문의했다.

또 오랫동안 미국생활을 했다는 한 상담자는 뱃속의 아이를 포함해 7명의 가족이 귀촌을 희망하며 육아수당 등 인구정책이 너무 좋아서 빨리 이주하고 싶다고 말했다.

빈집 리모델링은 창호 및 도배·장판부터 방수·단열작업, 배수 시설 개선포괄적인 주택 개보수 공사로 진행된다.

현재 55개소가 설계 및 공사중이며 지난 6월 1차로 27기구가 선정됐고 오는 25일 2차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21기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빈집은 실시설계 및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농산촌 유학과 연계해 입주주민을 우선



강진원 강진군수가 도시민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찾아 살펴보고 있다. <강진군 제공>

적으로 모집하고 추후 공실이 생기면 일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신규마을 조성사업 역시 활발하게 추진한다.

강진읍 임천저수지 주변으로 150세대 규모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임천지구는 지난 4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돼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강진읍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과 배산임수의 완벽한 입지조건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읍천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20개 신규마을을 발굴했고 약 550세대의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더불어 주택을 신축하는 전입 세대에게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 신축 지원사업까지 더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소멸의 위기를 벗어나고 도시민 유치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함께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군민들과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담양 23개 모든 약국 '치매안심약국' 지정 추진

내년까지...치매환자 조기 발굴

담양군이 내년까지 23개 모든 약국을 '치매안심약국'으로 지정하고 치매 환자 조기 발굴에 나선다.

담양군과 담양군약사회(회장 박찬식)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고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치매안심약국 협약을 맺은 약사는 지역사회에서 '치매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한다.

협약 약사는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은 뒤 치매 위험군으로 여겨지는 방문객에게 치매 환자 등록 때 혜택을 안내한다. 또 주민에게 치매 관련 상담을 연계하기도 한다.

담양군은 협약 약국을 통해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환자 등록을 권유하는 문구가 적힌 부직포 가방을 나눠줄 예정이다.

담양지역에서 등록된 치매 환자는 1300명이다. 75세 이상 지역민에게는 의무적으로 일 년에 한 번씩 치매 검진을 하고 있으며, 모든 군민은 무료로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치매안심약국 확대를 통한 치



담양군은 내년까지 23개 약국을 '치매안심약국'으로 지정하고 치매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지난해 치매안심약국 현판을 단 담양 종로약국. <담양군 제공>

매 예방 네트워크 구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치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치매안심센터(061-380-2971-297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함평군 11억 투입 농업 재해 피해 복구

개화기 저온 과수 피해 37.8ha·맥류 쓰러짐 114.2ha 등

함평군이 농업 재해 복구비 11억920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업 피해 복구비 지급 대상은 올해 봄 이상저온과 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손해를 입은 농가이다.

지난 4월 중순 개화기 저온 피해를 겪은 과수 농가와 서리 손해를 입은 일반 작물 농가에 대한 복구 지원 면적은 37.8ha이다.

5월 수확기 쓰러짐 피해를 겪은 맥류 농가 면적은 114.2ha이다.

생육기에 저온·고온 등 이상기온 피해를 본 양파 농가 292ha도 포함됐다.

피해 농가는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등을 지원받는다.

농업경영자금 상환 연기와 학자금 지원 등 간접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농약대 지원 단가는 맥류 ha당 74만원, 과수 249만원, 채소류 240만원 등이다.

대파대 지원 단가는 맥류 ha당 380만원, 채소류 586만원 등이 책정됐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신속한 복구비 지원으로 피해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 농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시민, 4주간 20만보 걷기 도전

25~27일 500명 선착순 모집

나주시가 오는 25-27일 '건강걷기 챌린지' 4기 참여자 5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건강걷기 행사 이름은 '따로 또 같이! 1305(하루에 30분 주 5일 걷기) 건강걷기 챌린지'이다.

참가자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4주간 20만보를 달성하면 된다.

나주시는 목표 달성을 한 지역민들에게 나주시 량산품권 1만원권을 준다.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에서 '기본 헬스(건강)' 앱을 가동한 뒤 걸음 수를 세면 된다. 운영 기간 안에

누적 20만보를 달성하면 성공이다.

나주시는 카카오톡 채널 '1305 건강걷기' 가입자들에게 일일 건강 상담과 공지사항, 주간 건강 소식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참가 신청은 나주시 보건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나주 지역 걷기 실천율은 30.6%로, 전남 평균(44.5%)을 밑돌았다.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신체활동 감소를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장흥 미혼 남녀, 여행하고 친구도 만들고

군 관계기관 근무 청년 친목 쌓기...다음달 6일까지 참가자 모집

장흥군이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끼리 인연을 맺도록 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장흥군은 다음 달 24일 목재산업지원센터 등에서 '관계기관 직원 장흥 바로 알기 여행'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장흥군은 장흥군 소속과 관계기관에서 일하는 25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참가자를 오는 10월6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남녀 15명씩 모두 30명이다.

이번 행사는 '여사친(여자인 친구), 남사친(남자인 친구 만들기)'을 주제로 진행한다.

장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지역을 제대로 알고,

서로 친목을 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했다.

이번 참가자들은 지역 명소를 탐방하고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을 한다. 조별 활동과 숲속 공연 등도 이어진다.

참가 신청 방법은 장흥군 누리집 새소식란을 확인하면 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행사가 장흥군에 직장을 둔 청춘남녀에게 소중한 인연을 만들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시책은 물론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활력 넘치는 장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 추모공원 추석 연휴 휴일 없이 개방

28일~10월3일 봉안당만 출입

장성군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옛새간 추모공원을 휴일 없이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연휴 기간 장성군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주차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추모 인원이 집중되는 상황에 대비해 '봉안당'만 개방하기로 했다.

제례당과 휴게 공간은 이 기간 운영하지 않는다.

추모공원 안에서 음식을 반입과 섭취는 제한된다.

장성군은 추모객 맞이할 위해 최근 봉안당 외부 계단을 보수하고, 공원 진입로의 잡목과 풀을 치웠다. 코스모스를 심어 경관 개선에도 신경 썼다.

장성군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추모할 수 있는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이하늘장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며 연휴 기간이 길어 많은 추모객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불편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